

정부 SOC예산 3조1천억 삭감 교육·의료·문화 인프라 직격탄

5년간 연평균 7.5%씩 감액
도 SOC 예산 1년새 반토막
인구유출·지역 침체 등 우려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급속도로 줄이면서 도내 경제의 건전성은 물론 주민들의 삶의 질까지 위협받고 있다.

정부의 올해 전체 예산은 지난해보다 28조3,000억원 증액했으나 SOC 예산은 오히려 3조1,000억원 삭감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SOC 예산을 연평균 7.5%씩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관련기사 2면

장장 내년의 경우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에서 받은 2019년 예산안 가운데 도와 관련된 SOC 예산은 1,957억400만원으로 올해 예산의 절

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도내의 경우 여전히 사회 인프라 기반이 열악한데다 SOC 건설에 대한 지역 경제의 의존율이 높아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도내에는 교육, 의료, 복지, 문화·체육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인프라 확충이 더욱 필요한 실정이다.

한영한 강원연구원 연구위원은 “SOC 지출 감소를 계획하고 있는 국내와 달리 미국, 영국, 독일, 호주, 일본 등 세계 각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인프라 부문 투자 비중을 확대하는 추세”라며 “도내 인프라는 교통, 물관리, 주거·교육, 산업·경제, 문화·체육, 의료 등 주요 부문별로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인구유출을 가속화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최기영기자



건설협회 도회 수해복구 성금 전달 대한건설협회 도회(회장:오인철)는 12일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회의실에서 1,000만원 상당의 평창군 차창천 수해복구 성금 전달식을 가졌다.

경제·건설·복지 줄타격 불가피 ... 선별적 투자 반드시 필요

강원SOC예산 대폭 삭감 우려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감소는 아직 인프라 확충에 대한 요구가 높은 도내에서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다.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 주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도 지역의 SOC에 대한 선별적 투자는 반드시 필요하다. 인프라는 지역 산업구조의 기초 체력 또는 체질 자체를 의미한다. 도내에는 이제 막 체질 개선에 돌입한 시점인 만큼 지역 SOC에 대한 특별한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

김호식 강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SOC 예산의 감소는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면서 “올림픽을 개최하며 인프라가 일부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삼척 등 도 남부권은 동서관통고속도로가 절실하고 SOC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의식주부터 의료·교육까지 정 주요건조차 못 갖춰=도내의 경우 기초적인 주거시설은 물론 최근 삶의 질에 가장 영향을 끼치는 교육과 의료 인프라까지 모두 열악하다보니 인구 유출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도내 주거시설은 2016년 기준 총 57만5,967호로 이 중 30년이

의식주조차 열악 악순환 반복

상수관·교통망 전국최저수준

건설량 감소 일자리도 악영향 여건 감안한 정부역할론 제기

상 노후 주거시설의 비중은 2010년 14.8%에서 2016년 23.1%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다.

특히 폐광지인 태백시는 40.1%, 접경지인 고성군은 37.5%에 달한다. 또 학교시설 2,735동 중 C등급이 26동이며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이 없는 읍·면·동은 19곳에 달한다. 50개 읍·면·동에는 병·의원

없고 이중 23곳은 약국조차 없다.

■누수를 전국 평균 2배, 밀 빼진 독에 물 붓기=도내에는 지난해까지 심각한 가뭄에 시달릴 정도로 대표적인 물 부족 지역이다. 도내 가뭄의 원인은 물의 절대적인 부족보다는 열악한 물 관련 인프라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도내 상수관로 연장은 1만1,833km로 누수율은 20%에 달한다. 전국 평균(10.9%)의 두 배다. 20년 이상된 노후 상수관로는 35.8%다. 현 추세대로라면 2025년에는 노후화가 63%에 달할 전망이다. 하수관로 역시 7,723km 총 보급률이 74.4% 정도다. 전국 평균(79.9%)보다 낮다. 또 최근 국지성 집중 호우의 빈번으로 중요도가 높아진

유수지, 배수펌프장 28곳 가운데 7.9%가 20년 이상된 노후 시설이다.

■여전히 열악한 연계도로망=2018평창동계올림픽 준비 과정에서 도내 교통 인프라는 획기적으로 발전했다. 강릉선 KTX, 서울-양양 고속도로, 서울-원주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이 대거 확충됐다. 하지만 광역교통망과 주민생활권을 잇는 일반도로망은 여전히 후진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도내 도로포장률은 86.2%로 전국 최하위다. 전국 평균은 92.4%다. 또 일반도로의 노후도(개통 후 11년 이상)는 67.3%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편이다. 교량 역시 3,360개 중 30년 이상 노후 교량이 238곳에 달하며 2025년까

지 883곳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SOC 활성화 통한 생산적 복지 필요=도내 경제구조는 제조업 기반이 취약해 건설업의 의존율이 높다. 건설업의 경우 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에서 하부구조가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특히 정부의 SOC 투자 감소로 인한 건설량의 절대적 감소는 건설경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도내 건설업 단순노무 종사자는 2016년 2만명가량이었으나 지난해 상반기 1만9,000명으로 감소했다. 건설업에서만 1,000명의 실업자가 발생한 셈이다. SOC 투자는 취업자 증가라는 생산적 복지로 이어질 수 있다. 최기영기자 ansver07@

【 2018.7.13(금) 건설경제 】

건협 강원도회, 차항천 수해복구 기부금 1000만원 기탁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회장 오인철)는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에서 기부금 기탁식을 갖고 차항천 수해복구를 위한 기부금 1000만원을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에

기탁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기탁식에는 오인철 건협 강원도회 회장을 비롯해 최형규 사무처장, 김창주 실장, 신동준 부장 등이 참석했다.